

La Princesse de Clèves에 關한 考察

洪 承 五
人文大 佛文學科

I

古典의인 作品은 아무리 時代가 바뀌더라도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끊임 없이 새로운 關心을 자아내고 恒常 새로운 觀點에서의 多樣한 解釋을 許容한다는 特性을 갖는다. 佛蘭西의 많은 古典의인 小說中에서도 近代의인 意味의 小說로는 最初의 몇 篇에 屬한다고 評價되는 Mme de La Fayette의 La Princesse de Clèves도 지금까지 여러 角度에서의 많은 解釋과 評價를 받아왔으면서도 아직도 시들지 않은 魅力을 지니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Camus의 말대로 “une certaine conception de l' homme”를 찾아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上流社會의 風俗을 보려고 했으며 사람에 따라서는 女主人公의 純潔을 볼 수도 있고 Sainte-Beuve의 말대로 “la pensée de l'auteur, qui est de peindre l'amour dans tout ce qu'il a de plus frais et de plus pudique, de plus adorable et de plus troublant, de plus indécis et de plus irrésistible, de plus lui-même en un mot.”¹⁾를 다시 吟味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다시 생각해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小說作品을 통해서 作者가 表現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傳統의으로, 그리고 요즘에도 一部 批評家들은 이 作品이 그 時代 그리고 時代的인 思考方式을 代表하는 多樣스러운 그리고 때로는 矛盾되는 일도 있는 여러 要素들을 成功的으로 綜合하면서 사랑에 관한 作者 特有的인 觀點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Mme de La Fayette의 경우에는 “(…) cette passion met l'être en péril”²⁾라는 Camus의 말처럼 情念과 人間本性에 對한 悲觀的인 理解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作品의 創作이란 것은 作家가 느낀 것을 調和있는 統一性을 維持하면서 讀者들에게 같이 느끼게 해 주려는 어떤 것으로 옮겨 놓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獨創的인 內容과 形式의 調和라는 問題가 생긴다. 形式面에서 본다면 이 小說 Mme de La Fayette가 作品活動을 하기 以前부터 存在해온 小說技巧 다시 말하자면 Honoré d'Urfé나 Mlle de Scudéry에게서 물려받은 技巧라든가 또는 Corneille, Racine 等 當時의 偉大한 悲劇作家들

1) Albert Camus L'Intelligence et l'Echafaud. “Théâtre, récits, nouvelle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Gallimard, 1962), p. 1898.

2) Sainte-Beuve: Madame de La Fayette, Portraits de Femmes “Oeuvres II”,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Gallimard, 1960), p. 1231.

또는 모랄리스트들, 및 回顧錄作家들의 技巧을 하나로 綜合하거나 또는 發展시킨 것이 아니라 純粹한 그의 着想에서 나온 獨創의인 것이다.

Mme de La Fayette는 小說 첫머리에 情念/貞節이란 서로 相反 價値를 提示하는데 그것은 이 作品의 構造面에서 큰 意味를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女主人公 Mme de Clèves가 行動해나갈 指針이 되는 것이며 그 女는 마음 속에서 많은 갈등을 거친 뒤에 結局에 가서는 그중에서 하나를 選擇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情念에 끌려 가면서도 곧 冷澈한 理性的의 判斷으로 그 情念의 誘惑을 물리쳐 버리는 女主人公의 心理의 展開과정을 分析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小說의 全體의인 構造를 더듬어 보면서 우리는 이 作品을 考察해 보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作品의 中心人物이 어떻게 展開되어 나가고 作品全體의 明確하면서도 建築物처럼 複雜한 構造 속에서 多樣하게 變化하면서 不斷히 反復되어 나가는 테마들이 어떻게 서로 均衡을 이루면서 統一된 作品을 이루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方向에 따라 考察을 進行해나가고자 한다.

II

이 小說의 초두에서부터 作家 Mme de La Fayette는 사랑에 관한 두개의 相反된 價値를 提示하고 있는데 그것은 抽象的으로 提示되어 있지를 않고 主役들과 一體가 되어 主役들의 內面에서 判斷選擇 되도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小說의 열쇠는 女主人公이 어머니의 가르침과 訓戒를 통해서 만들어와서 間接的으로 知能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두가지의 相反되는 生活方式 사이의 팽팽한 緊張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두가지 生活方式는 앞으로 女主人公이 個人的인 體驗을 통해서 그 價値를 評價해야 하는 것이며 그중의 어느 하나를 Mme de Clèves는 選擇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小說의 統一性은 모든 個人을 휩쓸어버리고 吸收해버리고 마는 社會에서 自身의 人格을 알려고 하고 自己를 主張하는 Mme de Clèves 라는 한 個人的인 創造를 그 바탕으로 하여 維持되고 있다.

따라서 Valois 王朝의 宮廷에 관한 紹介와 描寫로 이루어지는 序章은, 全體的인 構造라는 觀點에서 볼때에는, 女主人公이 해야하는 첫번째 選擇을 우리에게 提示해주는 것이므로 이 小說의 가장 重要한 部分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Henri II世의 側近 朝臣들이 이루고 있는 宮廷은 특히 젊은 男女에게는 매우 誘惑的이지만 그 反面에 破滅로 이끌어 가기 쉬운 온갖 危險을 內包한 形態로 表現되어 있으며 Nemours는 宮廷의 풍조를 특히 잘 나타내고 있는 본보기처럼 뚜렷이 浮刻되어 있다. 卽 사교계人士들이 處世해나가는 基本的인 태도, Galanterie와 野心으로 具現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無數한 社交界의 女性들에게 둘러싸이고 秋波를 받으면서도 Mme de Clèves를 만나기까지는 한번도 사랑을 經驗해본 적이 없었다. 사랑이라는 感情이 그에게 變化를 일으켜주게 될 것인가? Mme de La Fayette

는 分明히 그것을 否認하고 있다. Mme de Clèves가 有夫女라는 事實이 Nemours의 사랑에 是 障礙가 되지도 않으며 Mme de Clèves에게 對한 求愛를 中斷시키지도 못하는 것 같다. Nemours에게나 또는 歡樂에 빠져 있는 그의 同輩인 青年貴族들에게나 姦通은 全然 道德的 問題로 여겨하지 않는다. 그들은 情欲을 滿足시키려고 애쓸 뿐이다. 自尊心이라든가 利己心이라든가 一時的인 勝利를 즐기고 있는 獵色家의 殘忍性이 Nemours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Il sentit pourtant un plaisir sensible de l'avoir réduite à cette extrémité. Il trouva de la gloire à s'être fait aimer d'une femme si différente de toutes celles de son sexe".³⁾ prince de Clèves가 病들자 Nemours가 바라는 것은 "trouver dans l'avenir une suite de bonheur et de plaisir durable"⁴⁾이다. 그리고 prince de Clèves가 死亡하고 나자 그는 서슴치 않고 Mme de Clèves에게 다시 求愛를 시작한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自己自身の 幸福이요 滿足일 뿐 Princesse de Clèves의 良心의 苛責이나 心的苦痛은 念頭에도 없다. "—Ah, madame, (...) quel fantôme de devoir opposez-vous à mon bonheur? Quoi! madame, une pensée vaine et sans fondement vous empêchera de rendre heureux un homme que vous ne laissez pas?"⁵⁾ 그의 情念이 Prince de Clèves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은 다음 說明 속에 나타나 있다. "Enfin, des années entières s'étant passées, le temps et l'absence ralentirent sa douleur et éteignirent sa passion."⁶⁾ 그의 사랑은 그 自體로서 充分한, 理想的이고 永遠한 感情이 아니다. 그것은 補償이 있어야만 存續하는 것이다. 그의 性格의 本質은 利己主義的所有欲 그리고 享樂欲이다. 讀者의 關心은 Mme de Clèves가 이 사나이에게, 그리고 그가 具現하고 있는 社交界의 風潮에 誘惑되고 말 것인가에 쏠린다.

女主人公은 16歲의 美人으로서 婦德을 尊重하는 教育을 받고 成長했으며 Nemours나 宮廷人들의 價値觀과는 正反對되는 價値觀을 어머니의 訓戒를 통해서 지니게 된 女人으로 그려지고 있다. Mlle de Chartres는 小說의 서두에서 美와 貴族다운 稟位와 純粹性과 要컨대 모든 天稟을 고루 타고난 모습으로 登場한다. 거기에다가 錦上添花로 善과 惡에 對한 正確한 判別力까지 갖추고 있다. Mme de Chartres는 그 딸에게 陰謀가 亂舞하는 社交界에서 將次 謀略에 빠지지 않고, 放蕩貴族의 誘惑에 넘어가 一身의 破滅을 自招하지 않고 成功을 거두어 나가도록 보살피 줄 뿐 아니라 貞節을 尊重하고 지켜가라고 간곡히 타일렀다. 다른 어머니들이 하는 것과는 反對로 情念의 實際的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딸에게 감추지 않고 보여주고 그것이 이끌어올 不幸한 結果를 詳細한 描寫를 곁들여서 具體的으로 가르쳤다. 女子의 眞正한 幸福이란 男便을 사랑하고 男便에게서 사랑받는 것임을 딸에게 가르쳤

3) Mme de La Fayette. Princesse de Clèves, (Paris, Société d' Edition "Les Belles Lettres," 1961), p 113.

4) Ibid., p. 156

5) Ibid, p. 169.

6) Ibid, p. 180.

다. 그런 幸福은 歡樂과는 사뭇 다른 것이며 婦德의 實踐에 依해서 얻을 수 있고 그 報償으로 安定과 平穩을 얻을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外觀은 훌륭하고 氣分 좋지만은 galanterie와 家庭의 破綻으로 끝나버리고 本能만을 滿足시켜 주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걸보기에 嚴한 사랑이지만은 相互間의 아낌과 尊敬과 愛情으로 이루어진 夫婦愛이므로 貞淑한 아내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Mlle de Chartres가 받은 道德教育은 善惡의 認識과 判斷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⁷⁾ 어머니의 保護를 받을 수 없게 될 때 自意에 依한 選擇을 할 수 있도록 對備시키는데 目的을 둔 것이다. Mme de Chartres는 結婚에 關係서는 딸에게 自由로운 選擇을 시킨다. M. de Clèves를 自己는 좋게 보지만은 決定은 딸에게 一任한다. 딸이 그 사람의 personne에 對해서는 全然 끌리는 마음이 없다고 告白해도 Mme de Chartres는 “(elle) ne craignit point de donner à sa fille un mari qu’elle ne pût aimer, en lui donnant le prince de Clèves”⁸⁾ 이런 反應을 보이는데 이것은 Mme de Chartres가 딸을 믿고 그 바른 判斷力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딸이 將次 男便의 精神의인 長點을 尊重할 줄 알 것이고 또 夫婦愛의 바탕이 되는 아낌, 尊敬 그리고 愛情을 남편에게 틀림없이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期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夫婦는 모두가 훌륭한 性格과 마음씨의 所有者여서 곧 서로 理解하고 아끼게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들 사이는 愛情上으로 完全히 密着되지 않는 것이다. M. de Clèves는 아내에게 amour passion을 느끼고 있는 反面에 그에 對한 아내의 感情은 passion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尊敬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夫婦關係는 아내가 보기에는 至極히 正常的이고 滿足스러운 것이지만은 남편에게는 不滿스러운 것이다. 그는 自身이 아내에게 쏟는 熱情을 아내도 自身에게 보여주기 바라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幸福해질 수 없다. “……et, quoiqu’elle vécut parfaitement bien avec lui, il n’étoit pas entièrement heureux.”⁹⁾ 男便이 훌륭하다는 것과 그의 長點을 아무리 精神의으로 잘 알고 있어도 또 情念이라는 것을 男便을 통해서 直接보게 되어도 그것으로 해서 princesse de Clèves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는 못했다. 그것을 깨닫게 되려면 Coup de foudre 같은 經驗을 겪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Mme de Clèves가 아직 한번도 들어가보지 못한 領域이며 그 領域은 理性이나 官能의 領域이 아니라 想像力과 感性의 領域이다. Mme de Clèves는 自身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試練을 겪고 난 다음에야 自身의 感情이나 感動이 이런 領域들 中の 어느 것에 屬하는지 判別할 줄 알게 되고 그것들 하나하나에 그 것들 나름의 價値를 부여할 줄

7) 이것은 Descartes의 생각과 類似한 것이다. Descartes는 Les Passions de l’Ame “Oeuvres et lettres,” et lettre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Gallimard, 1953, 48節, p 720)에서 이렇게 말했다. “Ce que je nomme ses propres armes sont des jugements fermes et déterminés touchant la connaissance du bien et du mal, suivant lesquels elle a résolu de conduire les actions de sa vie ”

8) Madame de Lafayette, op. cit., p. 22.

9) Ibid, p 24.

알게 되는 것이다.

Mme de Clèves에게 다가온 첫 試練은 極히 誘惑的인 形態로 나타난 情念의 體驗이다. 舞踏會에서의 Nemours와의 相逢으로 해서 女主人公은 그때까지 자라왔던 合理的判斷과 義務와 貞節의 世界와는 分明히 對照되는 快樂과 感覺의 世界에 끌려들어간다. 이 젊은 女人에게 그것은 “une aventure qui avoit quelque chose de galant et d’extraordinaire”¹⁰⁾이다. Nemours가 풍기는 魅力, 社交界에서 發揮하는 그의 卓越한 能力, 이런것은 이 나이 어린 夫人의 마음 다시 말하자면 感性에 깊은 感銘을 준다. 情念의 性質과 그 危險性은 Henri II 世王과 Diane de Poitiers의 사랑의 插話を 통해서 分明하게 Mme de Clèves에게 通告되는데 이 插話は 單純한 餘談이라기보다는 이 小説의 가장 重要한 테마들 中の 하나인 情念이 非理性的이고 品位를 떨어뜨리기 쉬운 性格이라는 主題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實際로 情念은 Mme de Clèves의 精神的均衡을 直接的으로 變質시키고 그 判斷을 흐트치고 그 女子의 큰 長點인 훌륭한 誠實性을 어머니에게 對해서마저도 저버리게 한다. 이리하여 숨기게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 口實을 내세우게 되며 질투의 괴로움과 悔恨을 맛보게 되고 만다. Mme Clèves가 겪는 첫 試練을 통해서 情念, 수치, 숨김, 질투, 회한, 精神的更生의 試圖가 循環的으로 反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비록 그 順序는 다를지라도 한가지 要因은 不斷히 다른 要因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心理的作用은 圖式化해 볼때 圓形으로 展開되고 있다.

이 危機의 初期에서 重大한 事件은 Mme de Chartres의 죽음이다. Mme de Chartres가 딸에게 해 준 간곡한 忠告때문에 딸은 Nemours를 멀리하고 宮廷에서 멀리 떠나가는 行動路線을 擇하게 되는 것이다. Mme de Chartres는 특히 Princesse de Clèves의 孝誠에 呼訴함으로써 딸에게 誘惑에 對해서 싸우겠다는 誠實하고도 確固한 決心을 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感性에 呼訴하여 理性的 判斷으로 誘導하고 있다. 이 描寫를 통해서 우리는 이 母女가 얼마나 깊은 愛情으로 맺어져 있는지 感知할 수 있다.

“Mme de Clèves fondoit en larmes sur la main de sa mère, qu’elle tenoit serrée entre les siennes, et madame de Chartres se sentant touchée elle-même: —Adieu, ma fille, lui dit-elle, finissons une conversation qui nous attendrit trop l’une et l’autre, et souvenez-vous, si vous pouvez, de tout ce que je viens de vous dire.”¹¹⁾

Mme de Clèves는 臨終時에 Mme de Chartres가 한 訓戒를 잊지 않고 오로지 딸의 幸福만을 祈求하던 어머니에 對한 愛情과 感謝의 마음만이 깊이 배어있는 가슴속에 깊이 간직해 나가게 된다. 이 重要한 場面과 짝을 이루는 場面은 M. de Clèves가 숨을 거두는 寢床 옆에서 벌어지는 場面이다. 깊은 그러나 抑制된 感動으로 始終되는 이 場面들이 이 小説의

10) Ibid, p. 28

11) Ibid, p. 45

두 轉換點을 이루며 女主人公의 內面的 進展 과정에서 感動의 두 頂點을 이룬다. 死別의 마지막 瞬間에, 사랑하는 두 사람은 Mme de Clèves에게 試練을 겪는 동안에 지켜나갈 길을 말하자면 提示해 주고 行動을 이끌어갈 수 있는 感情을 마음 속에 일으켜 준다. Mme de Clèves가 어머니의 忠告를 實踐에 옮기는 것은 單純히 그 忠告가 합당하다는 것을 認定하기 때문에 만이 아니라 그 忠告는 自身에게 必要한 眞正하고 完全한 사랑의 表現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런 必要性으로 해서 남편과의 愛情上的 接近이 생기게 된다. 아직도 어렵פות하게 Mme de Clèves는 自身에게 對한 男便의 愛情의 特性을 意識하고 男便에게 의지할 마음을 갖는다.

“La manière dont m. de Clèves en usoit pour elle lui faisoit souhaiter plus fortement que jamais de ne manquer à rien de ce qu'elle lui devoit. Elle lui témoignoit aussi plus d'amitié et plus de tendresse qu'elle n'avoit encore fait, elle ne vouloit point qu'il la quittât, et il lui sembloit qu'à force de s'attacher à lui, il la défendrait contre M. de Nemours.”¹²⁾

이와 같은 “amitié”와 “tendresse”의 再燃에 힘입어 Mme de Clèves는 男便에게 愛着心을 가지면서 積極的으로, 그리고 Nemours를 보는 것, 그와 同席하는 것을 拒否함으로써 消極的으로 情念에 對하여 싸울 수 있게 된다.¹³⁾

그러나 Mme de Clèves는 試練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또한 男便이 自身에게 對해서 품었던 理想的인 이미지를 行動을 通해서 實現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Vous m'estimez plus que je ne vau, répliqua madame de Clèves en soupirant, et il n'est pas encore temps de me trouver digne de vous.”¹⁴⁾ 男便이 Mme de Clèves에게 갖는 信賴와 誠實性의 行使는 이런 試圖를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 이 誠實性이 갖는 明白한 價値를 Mme de Tournon의 사랑에 關해서 M. de Clèves自身이 다음과 같이 強調했던 것이다.

“...car la sincérité me touche d'une telle sorte que, je crois que, si ma maîtresse, et même ma femme, m'avoient que quelqu'un lui plût, j'en serois affligé sans en être aigri; je quitteroi le personnage d'amant ou de mari, pour la conseiller et pour la plandre.”¹⁵⁾

同時代人들에 依해서 事實답지 않다는 判斷이 내려진 告白의 場面은 오늘날 完全히 正當한 것으로 認定받고 있다. 卽 이 告白에서 Mme de Clèves는 그것이 危險을 內包하고 있기는 하다는 것을 明哲하게 意識하면서, 誠實성과 信賴를 저버리지 않고 實踐해 보이고, 그렇게

12) Ibid, p 46.

13) Descartes. Les Passions de l'Ame, article 27, p p 708-09, article 45, p 717.

14) Madame de Lafayette op. cit., p 47

15) Ibid, p 52.

함으로써 男便에게서도 同等한 信賴心을 불러일으켜보려고 試圖하게 되는 것이다.

夫婦間에 이처럼 愛情에 依한 接近이 이루어진 뒤를 이어 또다시 情念이 反復되고 그에 따라 夫婦間의 紐帶가 흔들리려고 한다. Mme de Clèves에게서는 한편으로는 判斷과 意志 다른 한 편으로는 夫人自身을 휩쓸어갈 듯한 거센 急流같은 情念사이의 猛烈한 葛藤이 爆發한다. “Veux-je la (la passion de Nemours) souffrir? Veux-je y répondre? Veux-je m’engager dans une galanterie? Veux-je manquer à M. de Clèves? Veux-je me manquer à moi-même? Et veux-je enfin m’exposer aux cruels repentirs et aux mortelles douleurs que donne l’amour?”¹⁶⁾ 心中의 긴장을 表現해주는 이런 反復된 質問에 對한 大답이 否定的이라는 것은 明白하다. Mme de Clèves는 誘惑에 屈伏하고 싶지는 않으나 自身의 意志가 不足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他人의 意志에 呼訴할 생각을 해본다.

“Je suis vaincue et surmontée par une inclination qui m’entraîne malgré moi; toutes mes résolutions sont inutiles; je pensai hier tout ce que je pense aujourd’hui et je fais aujourd’hui tout le contraire de ce que je résolus hier. Il faut m’arracher de la présence de M. de Nemours; il faut m’en aller à la campagne, quelque bizarre que puisse paroître mon voyage; et si M. de Clèves s’opiniâtre à l’empêcher, ou à en vouloir savoir les raisons, peut-être lui ferai-je le mal, et à moi-même aussi, de les lui apprendre.”¹⁷⁾

Mme de Clèves는 決心이 서고, 멀리 떠나가도 좋다는 남편의 承諾을 얻게 된다. 夫人이 隱退하고 싶어하는데 놀란 남편은 간곡하고도 多情한 態度로 質問을 하여 마침내 夫人은 感動하여 告白을 한다.

이 小說의 첫머리에 이미 밝혀진바 있었지만 Mme de Clèves가 擇一해야하는 두가지 生活形態 卽, 한편으로는 熱에 들뜬듯한 興奮이 수반하여 그 때까지는 밑에 숨어있어서 나타나지 않던 情念을 드러내주고야 마는 宮廷의 社交生活,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義務와 德行을 實行해나가면서 個人的良心이 安定을 찾을 수 있는 私生活中 한가지의 選擇을 Mme de Clèves는 우선 一般的인 形態로 提示한다. 萬若에 M. de Clèves가 宮人生活를 拋棄하겠다고 同意해준다면 그들은 이 安靜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고 Mme de Chastres가 勸한 夫婦間의 結合을 實現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때 Prince de Clèves는 判斷의 첫 過誤를 犯한다. 그는 夫人이 直面한 進退維谷의 窮地가 얼마나 重大한 것인가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Mme de Clèves는 自身이 避해 떠나야하는 社交界가 얼마나 危險한 것인가를 明確히 밝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告白에는 重大한 宣言이 포함되어 있어서 男便을 安心하게 하고 또한 그들 夫婦에게 提示되는 明確한 解決策이 있다는 것을 男便에게 보여주게 된다. 그 解決策이란 夫人의 行

16) Ibid., p 105.

17) Ibid., p 105.

實이나 意圖는 潔白하고, 男便에게 품고 있는 感情은 愛情과 尊敬과 信賴이므로 이것들이 堅固한 基盤을 이루어서, 그 위에서 夫婦는 힘을 모을 수 있고 젊은 夫人의 精神의인 救援을 함께 추구해갈 수 있고 이 試練을 함께 견뎌나감으로써 그들 사이에 眞正한 夫婦關係를 만들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 Mme de Clèves는 이 어려운 길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男便 쪽에서도 自身과 똑같은 高潔함과 信賴를 가져줄 것을 期待한다. Corneille의 主人公이라면 높은 人格에의 呼訴는 아마 精神面에서 똑같은 上昇을 誘發할 것이다. 그러나 M. de Clèves는 例外的인 사람이 아니다. 그도 人間이 가지는 弱點을 가진 사람이므로 好奇心과 疑心과 嫉妬 때문에 判斷이 흐려지기 쉽다. 그와는 反對로 夫人의 精神力은 다음 告白에서 엿볼 수 있다 “L’aveu que je vous ai fait n’a pas été par foiblesse, et il faut plus de courage pour avouer cette vérité que pour entreprendre de la cacher”¹⁸⁾

따라서 이 두 主人公의 心理展開의 重要한 瞬間이 온 것이다. 試練은 그들에게 잠시 苦痛을 주지마는 그들을 社交界에서 물러가게 함으로써 그리고 眞正한 結婚의 精神에서 서로 가까워지게 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內面生活에서 보다 높은 水準에 到達할 수 있게 해준다. 夫人은 그런 可能性을 엿보기 때문에 그런 길에 들어설 準備를 갖춘다. M. de Clèves는 한편으로 宮廷에서의 自身の 地位를 即刻拋棄할 勇氣가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自身의 情念과 好奇心과 질투심을 抑制할 수가 없다. 그는 自己의 內心을 吐露하는 瞬間에야 비로소 아내의 心情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떤 길을 擇하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다.

“Je vois le péril où vous êtes; ayez du pouvoir sur vous pour l’amour de vous-même et, s’il est possible, pour l’amour de moi. Je ne vous le demande point comme un mari, mais comme un homme dont vous faites tout le bonheur, et qui a pour vous une passion plus tendre et plus violente que celui que votre coeur lui préfère.” M. de Clèves s’attendrit en prononçant ces dernières paroles, et eut peine à les achever. Sa femme en fut pénétrée et, fondant en larmes, elle l’embrassa avec une tendresse et une douleur qui le mit dans un état peu différent du sien. Ils demeurèrent quelque temps sans se rien dire(...).”¹⁹⁾

感性을 表現하는 語彙를 反復하여 強調하면서 使用함으로써 그의 基本的인 생각을 잘 傳達해주고 있다. Mme de Chartres가 했던 것처럼 젊은 아내의 마음에 呼訴함으로써 M. de Clèves는 信賴와 사랑의 表示를 통해서 아내가 必要로 하고 있는 愛情의 뒷받침을 해주었다.

이들 夫婦사이에 잘 展開되어 나가던 感情은 明確하고도 多幸스러운 解決策으로 그들의 試練을 이끌어갈 수도 있을 것이지만 不幸히도 그것은 Nemours의 輕率한 行動으로 말미암아 外部로부터 中斷되고 만다. 그들은 서로 距離를 느끼게 되고 마음이 어느때보다도 더 멀어지고 變換한 것처럼 서로 느끼게 된다. M. de Clèves의 질투와 苦痛은 極에 達해서 거의

18) Ibid. p. 110

19) Ibid p. 119

絶望에 이르고 結局은 그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될 마지막 危機를 만들어낸다. 그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宣言한다. “Enfin il n’y a plus en moi ni de calme ni de raison (...) je vous demande seulement de vous souvenir que vous m’avez rendu le plus malheureux homme du monde.”²⁰⁾

이처럼 激한 感情의 爆發이 있는 다음에 두사람의 깊은 가슴속에 깔려 있었던 感情이 다시 힘을 되찾아 새로운 和解를 가져온다. M. de Clèves는 올바른 아내의 意圖와 自己에게 對한 愛情을 認定하게 된다. “Toutes les fois que cette princesse parloit à son mari, la passion qu’il lui témoignoit, l’honnêteté de son procédé, l’amitié qu’elle avoit pour lui, et ce qu’elle lui devoit, faisoient des impressions dans son coeur qui affoiflisoient l’idée de M. de Nemours; mais ce n’étoit que pour quelque temps (...)”²⁰⁾

實際로 Coulommiers에 隱退한 Mme de Clèves는 또다시 M. de Nemours의 생각에 잠기고 의로움 속에서 그의 肖像畫를 들여다보고 그의 것이었던 短杖을 만져 본다. 이 無言의 告白은 男便에게 했던 意識的인 告白이 머리에 박혀 있다가 再現된 말하자면 그 變形된 그런 場面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에 對해서 Michel Butor는 無意識에서의 에로티즘의 抑制라는 解釋을 했다.²¹⁾ 이 挿話는 Mme de La Fayette가 이 小說의 첫머리부터 指摘했던 Mme de Clèves의 氣質의 본모습을 오히려 確認해주고 있다. 이 氣質은 想像力의 領域에 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實際로 Mme de Clèves는 Nemours가 앞에 나타나는 것을 拒否하고 또 그를 만났었다는 것마저도 疑心하고 있기 때문이다.

夫人이 自身의 行動을 反省하고 얻은 생각이란 自身을 爲해서는 誘惑을 避하고 男便에게는 疑心하는데서 오는 苦痛을 免하게 해주자는 것이다. 行動은 그토록 誠實하면서도 M. de Clèves는 걸으로 드러나보이는 것에 눈이 어두워 無分別해지는 그런 弱點을 갖게 된다. 그래서 證據도 없이 “—Je n’ai rien à vous apprendre (...) sur quoi on puisse faire de jugement assuré.”²²⁾ 라고 책망하고 또 그自身이 더 잘 알고 있어야 할 아내의 性格에 關해서 重大한 잘못을 저지른다. 그러므로 그가 自己의 破壤을 自招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Nemours는 그가 저지른 輕率한 行動으로 해서 M. de Clèves의 죽음을 誘發한 部分的인 責任이 있으며 Mme de Clèves는 全然 罪가 없다. 그러므로 夫人은 道德的으로 客觀的인 面에 서있는데 이것은 그 個人的인 良心의 面과는 區別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 良心은 一切의 行動이나 意圖面에서의 責任을 完全히 벗어나고 感情의 反應에 依해서만 影響을 입고 있다.

愛情面에서 볼 때 Mme de Clèves는 男便이 걸린 病때문에, 男便이 夫人때문에 發病했다고 自身을 非難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도 前에, 混亂에 빠져 어쩔줄 모르고 있다. “Elle ne

20) Ibid. p. 143.

21) Michel Butor: Sur La Princesse de Clèves, in Répertoire (Paris, Editions de Minuit, 1960) pp. 76-77.

22) Mme de La Fayette: Op cit., p 154.

sortoit point de la chambre de son mari, et avoit une douleur violente de l'état où elle le voyoit”²³⁾ 마지막 對話를 나누기 위해 눈물에 젖은 얼굴을 하고 남편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는 男便의 죽음으로 거의 精神을 잃고 만다. 感性에 깊은 충격을 받은 夫人에 對한 正確한 이 描寫와, 마지막으로 夫人이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바라보는 Nemours와 對面途中에 나타나는 感動의 表現과는 極히 좋은 對照를 이루는 것이다. 이 두가지의 感動表現方式과 그 感動의 性質사이에는 懸隔한 差異가 있으니 한 便은 男便이 어느 程度로 自身을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너무 늦게야 알았다는 데서 오는 眞正한 絶望이고 다른 한 便은 自身の 靑春, 自身の 첫사랑, Nemours에 依해서 人格化된 自身の 꿈에 對한 訣別인 것이다. Princesse de Clèves에게서 冷冷한 態度니 利己主義니 打算이니 云云할 수는 勿論 없다. 男便이 세상을 떠났을 때 보인 極度の 苦痛이라든가 事實에 있어서는 潔白 힘에도 不拘하고 夫人이 느끼는 悔恨이라든가 하는 것은 夫人의 高雅한 良心과 特出한 感性에 緣由하는 것이다.

죽은 男便을 생각하여 守節을 하고 自己한테 男便이 아마 願했으리라고 짐작되는 대로 자는 決定을 한다. 어머니의 追憶에 忠實하고 Nemours를 避하자고 할 決心이 첫 試練에서 힘을 돋구어주었던 것처럼 이 決定은 두번째 試練에서도 Mme de Clèves를 이끌어주게 된다. 그러므로 構造上의 比較는 明白해진다. 이것은 되풀이이다. 그러나 單純한 反復이 아니라 깊이로 探求를 해본 것이다. 이 小説은 女主人公이 完全히 알게 되고 完全한 選擇의 自由를 갖게 되기 前에 거쳐가지 않으면 안되는 두 段階를 內包하고 있다. 故人의 追憶에 忠實하다거나 또는 決心을 한다는 點에서는 類似하면서도 첫번째 試練보다는 두번째 試練이 어려움이나 意味에 있어서 더욱 커진것으로 보아 作家는 小説의 要素를 反復해 써나가면서 그때마다 새 要素를 添加해나가는 漸增法을 擇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姦夫와의 사랑이나 또는 忠實한 夫婦生活이라는 두가지 中에서의 選擇이 이제는 問題가 아니다. 女主人公 혼자만이 여러가지 價値사이의 差等を 알 수 있고 判斷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選擇이 問題인 것이다. Mme de Clèves는 어떤 宗教上의 規則이나 道律律이나 世俗的인 法律을 違反하지 않고 duc de Nemours와 結婚할 수 있을 것이며 自身の 性向을 滿足시킬 수 있을 것이다. Nemours에게 품고있는 好感은 男便의 죽음에 뒤따라온 激甚한 苦痛에 依해서 희미해졌지마는 그래도 如前히 存續하며 Nemours를 보면 되살아난다. “Quel effet produisit cette vue d'un moment dans le coeur de Mme de Clèves! Quelle passion endormie se ralluma dans son coeur, et avec quelle violence!”²⁴⁾ Nemours는 想像속의 貴公子처럼 完璧한 모습으로 보여서 Mme de Clèves는 잠시 幸福의 꿈을 꾸며 흥분해본다. 꿈에서 다시 深思熟考로 떨어지는 일은 괴로운 일이다. 過去는 없어질 수 없고 또한 M. de Clèves가 臨終의 寢

23) Ibid., p. 155.

24) Ibid., p. 163.

床에서 表明한 不安 걱정도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Nemours와 만나보기도 前에 그의 良心은 딜렘마에 빠진다. 그 關係는 아주 明白하다. 貞節, 安靜, 義務가 幸福, 罪, 苦痛과 對立되고 있으며 그에 對한 解決方案도 豫測할 수 있다. Mme de Clèves가 Nemours와 마주 對面하는 것에 同意하는 것은 自身の 行爲가 感情에 依해 決定되지 않고 嚴格한 理性의 判斷에 依해 正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自身の 힘을 意識하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安靜과 義務의 遵守라는 方向으로 決定을 내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그때까지 抑制하기만 해 온 自身の 感性과 想像力의 움직임을 表現할때 어떤 즐거움을 느낀다. “(…) je ne sais même si je ne vous le dis point plus pour l’amour de moi que pour l’amour de vous.”²⁵⁾

Mme de Clèves가 Nemours의 懇請을 물리치기 爲해서 提起하는 異議는 여러가지 部類의 것이다. 道德的인 部類의 것으로는 그가 Mme de Clèves 自身 때문에 남편인 M. de Clèves의 죽음의 原因이 되었다는 것이다. 心理的 部類의 것으로는, 한편으로는 情念이라는 것의 沒있는 性質과 Nemours의 快樂主義의 性質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結婚의 永遠한 約束 사이에는 根本적으로 兩立되지 않는 對立關係가 있다는 것이다. Mme de Clèves는 길투의 괴로움을 經驗했고, 사랑하는 사람이 表示하게 될지도 모르는 無關心이 自身에게 惹起하게 할 괴로움이 어떤것인가를 明哲하게 豫見하고 있다. 또 夫人은 Nemours의 情念은 征服欲으로서 앞에 가로막고 있는 障礙때문에 더욱 불타고 있는데 얼마나 그 情念은 自己男便의 眞正한 禮讚과 尊敬이라는 情念과 다른 것인가를 理解하고 있다. M. de Clève야 말로 結婚에서도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이 世上에 단 하나뿐인 사람으로 夫人의 눈에는 비치는 것이다. 끝으로 心情上의 理由가 있다. Mme de Clèves의 感性은 오로지 情熱的인 誘惑에만 集中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女子에게 윗사람답게 사랑을 베풀어주었던 어머니와 男便 같은 사람들에게도 쏠린다. 그러므로 Nemours의 懇請에 對한 Mme de Clèves의 拒絕은 그 女子의 全人格을 表現하는 行爲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人格을 形成하는 各要素는 道德的 良心과 知性和 마음等이다. 道德的 良心은 그 女子로 하여금 各自가 져야 할 責任의 몫을 各自에게 割當해 주게 했고 그 確固한 知性은 情念과 그것이 持續되는 期間사이에는 어 절 수 없는 對立이 있음을 보여주고, 마음은 男便이 Mme de Clèves에게 맹세했던 사랑의 眞正한 價値를 느끼게 해주고 너무늦게야 그것을 認定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가슴을 에는듯한 後悔를 갖게 해준다. 夫人은 自身이 한 拒絕을 正當化하기 爲해서 義務와 마음의 安靜 다시 말하면 內面의 平衡, 精神과 마음의 平和를 내세우는데 萬一 情念에게 自由롭게 活動할 餘地를 주면 精神과 마음의 平和는 必然코 威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Mme de Clèves는 自身の 人格의 一部를 이루는 空想的이고 情熱的인 自我를 否認하지 않으며 그것을 意志의 決定으로 갑자기 없애지도 않는다. 意志는 女主人公의 行動을 統制하지만 感情을 規

25) Ibid., p. 168.

제하지는 않는다. 그女子的 感情과 그 變化는 M. de Clèves의 사랑이 Nemours의 사랑보다 나은 것이었다는 判斷의 影響을 받는 同時에, 어머니에게 對한 그리고 男便에게 對한 感謝, 사랑, 愛着 같은 心情의 影響을 받는다. Nemours의 눈물과 感動의 表示앞에서 Mme de Clèves의 感性은 刺戟되어 夫人은 애절한 서글픔이 깊이 배어든 遺憾의 말로, 時間이 모든 것을 解決할 것이라는 말로, 그리고 Nemours의 自尊心을 滿足시키고 自身の 마음을 安心시키려는 말로써 自己意思를 表示한다.

“(…) ayez cependant le plaisir de vous être fait aimer d’une personne qui n’auroit rien aimé, si elle ne vous avoit jamais vu: croyez que les sentiments que j’ai pour vous seront éternels, et qu’ils subsisteront également, quoi que je fasse”²⁶⁾

最終選擇은 조금도 놀라운 것이라고는 없다. 왜냐하면 이 小說全體를 통해서 實際 體驗 속에서 準備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 選擇은 여러 試練속에서 漸次 만들어진 人格에 一致하게 되고, 社交界의 幸福과 個人的 幸福사이의 差異를 알아볼 줄 알게 된 良心에 一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對한 追憶이 첫 사랑의 魅力보다 所重하게 저울질되는 感性에 一致하는 것이다. M. de Clèves의 追憶은 夫人에게 義務感을 強化해주고 夫人은 죽은 남편에게 對한 愛情과 感謝의 感情이 自己 마음 속 깊이 스며 든 것을 느낀다. 이처럼 夫人의 感性마저도 夫人이 社交界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돕는다. Mme de Clèves가 決定을 내리는데 있어 恩寵의 啓示는 조금도 介入하지 않았다는 意味에서 이것은 宗教的인 改宗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修女院을 擇함으로써 夫人은 孤獨을 維持할 수가 있고 必要的인 自由를 確保할 수 있다. 하늘의 부름만 있다면, 지금까지는 Mme de Clèves가 하지 않도록 삼가고 있는 信仰告白을 嚴肅히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Mme de Clèves가 絶對單獨으로 어느 누구의 干涉도 받지 않고 完全히 自由로운 狀態에서 自身の 知성과 體驗과 마음에만 비추어 내린 個人的인 決定이다. 夫人의 生涯의 이 마지막 段階는 社交界에 對한 拋棄이고, 人間을 괴롭히고 또 墮落시키는 情念에 對한 拋棄이고, 로마네스크한 想像力 그리고 또한 꿈에게 품는 헛된 생각에 對한 조심스러운 拋棄이다. 다시 말하자면 英雄의이거나 嚴肅하다거나 한것과는 反對되는 愼重한 拋棄態度이다. Princesse de Clèves는 明哲한 判斷을 바탕으로 한 選擇에 依해서 情念과 그것이 惹起하는 結果를 물리치는데 그것은 어떤 批評家들이 主張하는 것처럼 傲慢하게 혼자서 超然한 孤獨을 찾기 爲해서가 아니라 貞節과 善行과 他人들에게 마치려는 生活, 그리고 自身の 눈에 보다 나은 것으로 보이는 生活을 하기 爲한 것이다. 게다가 Mme de Clèves는 이 마지막 段階에서까지도 親切한 마음씨를 發揮하여 Nemours의 感情에 傷處를 주지 않도록 細心한 注意를 기울여서, 自身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自己의 決定을 說明해주게 한다. 그리고 拋棄와 道德的完成의 길로 Nemours도 또한 들어가도록 說得하기 爲하여 夫人

26) Ibid., p. 174

은 그에게 對해서 自身이 느끼는 愛情을 주저하지 않고 想起시켜 준다. Princesse de Clèves의 道德的 精神的 發展은 女性心理의 細密한 分析의 덕으로 夫人의 人物像을 조금도 損傷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와는 反對로 純粹와 貞節을 지켜나간 honnête femme라는 모습으로 浮刻시켜주고 있다.

III

우리는 위에서 La Princesse de Clèves의 짜임새 있는 힘은 허술한 外的構成에서보다는²⁷⁾ 構想에 있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했다. 作家는 한 女主人公을 통해서 때로는 相反되기가까지 하는 多樣한 觀點들을 效果의으로 使用하여 作品을 構成했는데 이 女主人公의 內的인 變化가 作品의 統一의인 調和를 이루고 있다. 心理的展開는 根本的으로 두 段階로 이루어지며 各段階마다 一聯의 連續的 事件이 登場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要素들은 多少 變化되어 反復 使用된다.

두번째 試練은 主人公의 心理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데 그것을 통해서, 男便의 죽음이라는 外的인 要因에 依한 解決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Mme de Clèves의 自由로운 選擇으로써 內的인 解決에 到達할 수 있는 것이다. 實際로 男便이 죽고 나서 Nemours와의 再婚은 社會의 規範으로 보아서도 可能한 選擇으로 提示되며 社會나 그 女子自身の 幸福을 渴望하는 마음의 姿勢나 모두가 그 再婚을 당연하게 여긴다. 여기에 volonté de vertu 自身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은 M. de Clèves에 對한 追憶, 그리고 “repos” 다시 말하면 內的平和의 必要性이 對立된다. 內面의 平和를 渴望하는 것은 实实在在的 利己主義와는 조금도 關係가 없는 것이다.

Mme de Clèves의 性格은 漸進的으로 形成되어 나간다. 이 과정에서 意志가 擔當하는 구실은 제대로 正確하게 分析되어 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結末이 情念에 對한 意志의 勝利 다시 말하면 마지막 瞬間에서의 英雄的인 解決이라고 풀이한다. 그런데 우리가 對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指摘한 것처럼 抽象的인 概念이 아니라 한 女主人公의 體驗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外見上의 勝利란 實際로는 傲慢한 自尊心의 反撥이며 情的인 自我의 自殺이라고 생각하고는 「意志없는 世界」라는 結論을 끌어낸다. 意志라는 것은 事實上 情念이 생겨나고 波動을 일으키는 것과는 別로 關係가 없다. 그것은 두개의 서로 다른 領域이다. 意志는 行動의 領域에 適用되고 그것이 發動하려면 어떤 認識이 있어야 하며 그 認識이 判斷으로 그 다음에는 決定으로 歸着하게 된다. Mme de Clèves의 拒絶은 그 個人의 直接的인 經驗과 거기에서 생겨난 判斷을 基礎로 한 그 女子의 自由意志에 依한 行爲인데, 그 判斷에

27) ...il est curieux den noter que la composition du roman-type du XVII^e Siècle, la Princesse de Clèves, est fort lâche..., Camus, op. cit, p 1897.

依하면 自己의 義務를 따르는데서 얻는 安定이, 情念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不安定한 快樂보다는 바람직하고, 주는 사랑이 要求하는 사랑보다 越等하며 또 情念이란 永續的인 것이 아니어서 嫉妬와 苦痛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人間이란 無力한 存在이므로 自身을 超越하는 힘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 든가 하는 確信위에 세워진 徹底한 悲觀論도 없다. 그리고 이 小説에는 偶然性이라는 要素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²⁸⁾ 왜냐하면 Princesse de Clèves가 Nemours를 만났을 때는 그 女子는 이미 結婚한 몸이었기 때문이며 또한 夫人이 自由로운 몸이 되었을 때에는 Nemours에게 自己男便의 죽음에 對한 責任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萬一에 Mme de Clèves와 Nemours사이에 아무런 障礙도 없었다고 하면, 그리고 그들이 結婚을 할 수 있었다고 假定한다면 Mme de Clèves가 結婚生活에서 얻는 幸福은 Nemours의 不安定한 情念과 利己心과 快樂主義라는 要因들때문에 必然的으로 制限되었을 것이다.

이 小説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Corneille나 Racine 같은 同時代悲劇作家들의 戯曲과 比較되지만 그렇다고 悲劇的인 作品은 아니다. 主役男女中의 어느 누구도 不可避하게 죽도록 運命지어져 있지는 않다. 그들 두사람 모두가 언제나 兩者擇一을 할 수 있거나 또는 마음대로 選擇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M. de Clèves도 萬一에 嫉妬에 눈멀지 않고 正確한 判斷을 할 수 있었다면 살아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萬一에 더욱 信賴心을 보였더라면 아내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自制力을 되 찾아서 그런 判斷力과 信賴心을 보인 것은 죽음이 臨迫했을 때 였다. 그가 죽은 것은 必然的인 結果이기보다는 極度の 意氣소침과 一時的인 어리석은 생각에 起因한 偶發的인 事件이다. Mme de Clèves는, 一部批評家들이 죽음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孤獨을 強要당한 것은 아니다. 萬一에 願하기만 한다면 Mme de Clèves는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自身の 態度를 버리는 쪽을 選擇하여 Nemours와 再婚하고 世上사람들 보기에 完全히 合法的인 結婚속에서 그에게 끌리는 마음을 滿足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Nemours와 같은 利己心을 갖지 않고 M. de Clèves처럼 情念앞에 弱하지 않은 다른 男子와, 어머니가 生前에 當부하던 夫婦愛와 義務를 바탕으로 한 結合을 하려고 試圖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 爲해서는 Mme de Clèves가 成功的으로 自己의 過去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고 로마네스크한 幻想을 完全히 떨쳐버려야 할 것이고 自己는 조금도 남편의 죽음에 責任이 없다는 것을 客觀的으로 判斷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解決方法은 이 小説에서는 實現될 수 없을 것이다. 이 小説에서 Mme de La Fayette가 實際로 보여주는 것은 Mme de Clèves가 살아오면서 느낀 여러 가지 感情,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에게 對한 고마움이 섞인 사랑, Nemours에게 어쩔 수 없이 끌리는 愛情, 그리고 男便에게 對한 따뜻하고 熱烈한 愛着心과 그런 感情을 自身에게

28) Son déroulement n'est qu'une suite de hasards..., La Princesse de Clèves, présenté par Yves Brunsvick et Paul Ginestier, "Les classiques de la civilisation française," (Paris, Dider, 1966), p. 122.

불어 넣어준 사람들, 이런 것에 戀戀하여 過去에 愛着을 가져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다. Mme de Clèves는 選擇을 해야 하는 瞬間에, 너무나 過去에 사로잡히고 얽매어 있다. 게다가 그 自身도 그런 事實을 느끼고 있으며 自身이 處해있는 狀況을 보다 明確하게 그리고 보다 올바르게 展望할 수 있게 되기 爲해서는 時間이 더 흘러가야 하고 보다 먼 距離를 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안다. 最終選擇을 함으로써 Mme de Clèves는 찾고 있던 마음의 平和를 얻었다. 그 新生活이 주는 展望은 暗澹하고 슬픈 것이 아니라 맑고, 밝고 安定된 것이다. 情念을 追求할 때의 興奮은 잊어버린 채 Mme de Clèves는 貞淑과, 거의 宗教的인 純粹의 雰圍氣속에서 行動한다.

“Elle passoit une partie de l’année dans cette maison religieuse, et l’autre chez elle, mais dans une retraite et dans des occupations plus saintes que celles des couvents les plus austères; et sa vie, qui fut assez courte, laissa des exemples de vertu inimitables.”²⁹⁾

이 小說의 서두에서 Mme de Chartres가 딸에게 바랐던 眞正한 아름다움, 完全한 德性에서 오는 美는 이처럼 結末에 가서 實現되어 마무리지어 지게 된다. 그 過程을 세밀하게 分析해 나간 수법을 본다면 女主人公이 自身の 內面에서 發生하거나 進展하는 感情을 發見하고 分析하여 그 感情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自身の 行動을 決定한다는 세 段階는 그것을 스스로 反復되고 있다. 이 세 段階는 螺旋形을 이루면서 Mme de Clèves의 內面的인 변모라는 絶頂을 向해서 擴大되고 있다. 이 小說의 全體的인 調和는 두번의 쓰라린 試練을 통해서 精神과 마음의 平和를 얻고 他人에게 對한 犧牲속에 自己를 忘却한다는 純粹한 기쁨에 到達하는 女主人公의 內面生活을 成功的으로 創造해낸 그 構造과정에서 찾을 수 있겠다.

Bibliographie

- Lafayette, Madame de: La Princesse de Clèves, Texte établi et présenté par Albert Cazes, “Les Textes Français”, Paris, 1961.
- La Fayette, Madame de: La Princesse de Clèves, préface de Louise de Vilmorin, Le Livre de Pache, Paris, 1958.
- La Fayette, Madame de: La Princesse de Clèves, édition abrégée, avec des Notices par Maurice Favergeat, “Classiques Larousse,” Paris, 1947.
- La Fayette, Madame: La Rrincesse de Clèves, “Les Classiques de la Civilisation Française”, Paris, 1966
- Niderst, Alain: La Princesse de Clèves, le roman paradoxal, “Thèmes et Textes,” Paris,

29) Ibid., p 180

1973.

Dédéyan, Charles: *Madame de Lafayette*, 2^e édition, revue, mise à jour et augmentée, Paris, 1965.

Durry, Marie-Jeanne: *Madame de la Fayette*, Paris, 1962.

Adam, Antoine: *Histoire de littérature française au XVII^e siècle*, Tome IV, Paris, 1964.

Camus, Albert: *Théâtre, Récits, Nouvelle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1967.

Jean, Georges: *Le Roman*, Paris, 1971.

Lanson, Gustave et Tuffrau, P.: *Manuel illustré d'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édition complétée pour la période 1919—1950, Paris, 1971.

Adam, Antoine (Sous la direction de): *Littérature française, tome premier, des origines à la fin du XVIII^e siècle*, Paris, 1967.

Sainte-Beuve: *Oeuvres*, II,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1960.

Coulet, Henri: *Le roman jusqu'à la Révolution*, T.I.: *Histoire du roman en France*, Collection "U"., Paris, 1967.

Résumé

Un des caractéristiques des oeuvres classiques est de susciter un intérêt incessamment renouvelé et des interprétations variées. La Princesse de Clèves, après tant d'interprétations entreprises par les critiques, garde encore son charme et son actualité. Cette tragédie se joue entre trois personnages: la princesse de Clèves, son mari et M. de Nemours, mais l'intérêt se concentre sur la Princesse. C'est pourquoi nous avons essayé de trouver le propre de l'oeuvre dans le développement du personnage central, la Princesse de Clèves, et dans sa structure d'ensemble. L'héroïne se trouve devant le choix entre deux manières de vivre dont l'une l'amène au trouble, et l'autre, au repos. L'unité repose essentiellement pour nous sur la création d'un individu qui se cherche, s'affirme, se crée dans une société pleine de dangers pour la vertu des femmes. Mme de La Fayette a su utiliser des points de vue divergents et parfois contradictoires à travers un personnage dont l'évolution intérieure constitue une unité. Mme de Chartres veut inviter sa fille à acquérir une beauté que donne la vertu, et cette idée présentée aux lecteurs au début de roman se trouve réalisée à la fin.